

LH 시공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서 누수...18억 배상 판결

광주지법 “시공상 잘못...책임 7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 한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에 대해 LH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흡)는 전남 나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LH가 입주자대표회의에 18억5852만919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LH는 2014년 2월 전남 나주시에 있는 A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아 각 세대에 아파트를 인도했다.

하지만 A아파트 42세대 내부 천장에 설치된 44곳의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됐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LH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해 시공하면서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하자로 인해 아파트에

기능상·미관상·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됐다고 했다.

또 일부 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LH에 하자보수를 요청,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H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하자 중 1~4년차 하자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공상 과실에 의해 발생한 하자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입주자들의 사용상 과실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담보책임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공상 잘못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산화물이 배관에 들어와 구멍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정인이 현장조사를 통해 아파트 세대 내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확인했고, 감정인의 현장조사 이후에도 누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인이 배관에서 시료를 채취해 한국품질시험원에 검사

를 의뢰했다”며 “한국품질시험원은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의 원인은 배관 내부에 유기물이 산화물 입자들과 배관 내벽에 접촉돼 녹 덩어리를 만들고 이로 인해 급속도로 부식이 진행돼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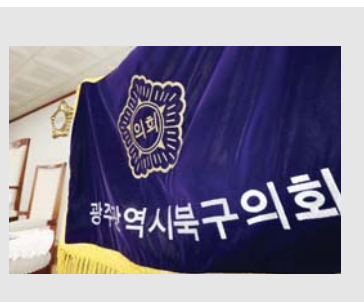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스프링클러 배관과 같은 재질의 동관에 구멍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시공 당시 배관 안으로 금속 산화물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2012년 12월쯤 배관을 잘못 시공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배관에 구멍이 생긴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A아파트 세대 내 스프링클러 배관을 설치하는 과정에 LH의 시공상 잘못이 있었고, 이 때문에 산화물이 배관에 들어왔으며 구멍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는 점,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직접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요” 3일 오전 광주 남구 양림동에서 열린 ‘양림 크리스마스 문화 축제’ 트리 꾸미기 경연에서 아이들이 준비해 온 재료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다.



혈세로 ‘거짓 출장’ 광주 북구의원들 어떤 징계 받나?

광주 북구의회가 주민 혈세로 ‘거짓 출장’을 다녀온 구의원 4명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거짓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당 소속 의원 4명에 대한 윤리위 회부안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고점례 의장은 윤리위에 회부했고, 윤리위는 4명의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를 검토하게 된다.

윤리위는 징계안을 검토한 뒤 빠르면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9월26일 4명 위유성 출장 제2차 본회의서 윤리위 회부 빠르면 20일 상정 할 듯

다.

구의회 차원의 징계 종류는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순서로 나뉜다.

논란을 빚은 고 의장은 앞서 기자회견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지난 9월26일 4명의 구의원은 이틀간의 일정으로 청사 신축 전 경남 통영시의 회 견학을 목적으로 출장비를 받아 통영을 방문했으나, 통영시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관광만 다녀와 위유성 출장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광주시당은 11월6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고 의장에게 당원자격정지 3개월, 김건안 운영위원장은 당직자격정지 3개월, 동행한 북구의원 2명에게는 각각 서면경고를 의결했다.

여친 이별통보에 앙심 청부 방화 사주 軍 부사관

여친친구의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은 20대 공군 부사관이 여자친구 부모 소유 비닐하우스에 방화를 사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도록 사주한 후 돈을 건넨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공군 부사관 A씨(2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50분쯤 B씨(36)에게 광주 서구 한 화훼단지 내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165㎡ 규모의 비닐하우스 2동이 전소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해당 비닐하우스는 A씨의 전 여자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곳으로 여친친구와 헤어진 후 앙심을 품은 A씨가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 돌산 바다 떠있다 구조된 40대 여성 사망

여수 해상에서 떠있던 40대 여성이 해경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30분쯤 여수시 돌산읍 방죽포 앞 30미터 해상에서 A씨(45·여)가 물에 떠 있는 것을 인근 갯바위 낚시객이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 구조당시 A씨는 호흡이나 맥박, 의식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왜 노래 못 부르게 해” 국밥집 주인 폭행 60대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국밥집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A씨(6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광주 농성동 한 국밥집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업주 B씨(65·여)가 막자 가게에 있는 손님을 내쫓고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라”고 한 말에 격분, 의지를 걷어차고 B씨를 밀친 것으로 드러났다.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하던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40대 쌍둥이 형제, 천안 아산서 숨진 채 발견

충남 천안의 한 아산에서 40대 쌍둥이 형제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께 동남구의 한 아산에서 쌍둥이 형제인 A씨(40)와 B씨(40)가 숨져있는 것을 한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0여만원 안 값는다고 지인 흥기로 찌른 50대

빛 독촉을 하는 지인에게 흥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50)는 지난 3일 오후 6시30분쯤 충주시 양성면의 한 식당 앞에서 B씨(46)가 빌린 돈을 값으라고 하자 흥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오래된 이웃이며 A씨가 B씨로부터 빌린 돈은 100여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다친 B씨는 곧바로 건대 충주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원주기독교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